

# 9,160원짜리 대학생

한국체대 학우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은 1시간에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몸값으로 청춘의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는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 대략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학비, 생활비뿐만 아니라 만약 자취를 한다면 월세까지 해결해야하는 대학생들은 혼자서 이러한 비용을 책임지기엔 아직 어리지만 부모님의 용돈만을 받기에 ‘책임감이 없다’는 시선을 받는다. 아이와 성인이 중첩되는 시기 대학생.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9,160원이 된다.

이종원 기자 201830028@m365.knsu.ac.kr

##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9명이 하는 아르바이트

국내 아르바이트 매칭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지난 7월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2.2%가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근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이유로 53.6%는 ‘2학기 등록금 및 용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그 뒤로 ‘문화, 여가 비용을 벌고자’가 44%, ‘당장 생활비 마련’이 39.3%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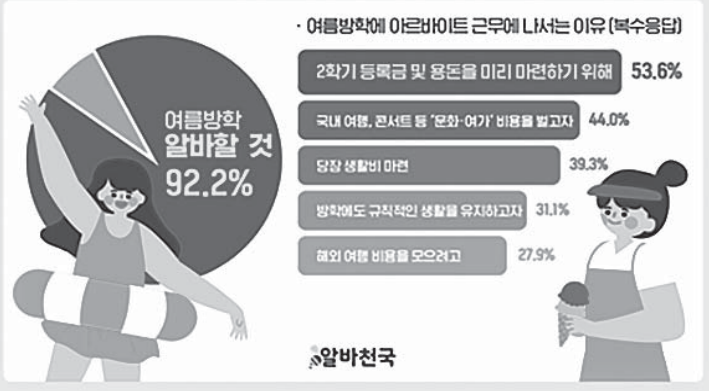
2학기 개강 후에도 등록금 및 생

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생 89.5%는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 답했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은 매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도 비슷한 처지다. 취재결과 8월에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80%의 학우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우들의 일주일 당 평균 근무 시간은 21시간 이상이다.

## 대학생 10명 중 9명 이번 여름방학은 아르바이트 근무 예정!

대학생 89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자료제공: 알바천국



##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한국체대생의 현실

“교내 큰수커피에서 수요일 6시간, 금요일 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 내내 약국에서 하루에 9시간씩, 총 일주일에 26시간 근무합니다.”

이번학기 20학점을 수강하는 한국체대 재학생A의 일과다. 교내 장학금을 받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재학생B는 “매일 학교수업을 마치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토요일은 아침부터 두 곳의 학원에서 일을 하

고 저녁이 돼서야 퇴근을 합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하지만 집안 사정상 모든 생활비를 제가 벌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활비 및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주일 20시간 이상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재학생 중 87% 이상의 학우들은 피로감, 부족한 학업 시간 등으로 인해 본인의 아르바이트 근무가 학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했다.

## 장학금은 학업에 악영향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

대학생이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학업이다.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학업을 방해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왜 발생할까. 대학생이 생활비, 학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르바이트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 1.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소득분위를 따져 9, 10구간을 제외한 1구간에서 8구간까지의 대학생에게 차등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뿐만 아니라 8구간 이하의 대학생 한정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도 있다. 교내·외에서 일을 하면 노동 시간에 비례해 장학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학우가 현재 해당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학기당 등록금은 현재 2,093,000원으로 만약 소득분위가 1~3구간에 속한다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8구간이라도 1학기 최대지원금이 1,750,000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약 34만 원만을 학비로 부담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이 실질적으

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학우들도 많다.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에 결정적인 소득분위 산정이 대학생들의 경제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의 중위 소득을 판별하고 이에 따라 소득분위를 책정한다. ‘2016년~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에 따르면 4년간 10만 8천 건에 이르는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 수가 접수되었고, 이 중 6만 9천여 건이 인정되었다. 소득분위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재학생D는 “소득분위 산정에 있어서 부모님의 실제 소득이 아닌 세금으로 인정되는 소득만을 따지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본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부모님이 공무원이라 소득분위가 9구간이고, 내 친구는 아버지가 회사 경영을 하면서 비싼 집과 비싼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수혜자인 것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울분을 토했다. 소득분위 방식에 대해

부모님 소득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재학생E도 “우리 집안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최근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항암치료를 하시게 되었다. 집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일을 해서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비와 같이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족의 소득만 따지는 것은 정확하게 나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며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재고를 호소했다.

### 2. 교내장학금

한국체육대학교는 매년 약 23억 4천만원의 예산을 교내장학금으로 배정한다. 교내장학금도 종류가 많은데, 그중 학생들이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장학금이 ‘등록금감면장학금’과 ‘사후장학금’이다. 등록금감면장학금은 체육학과 64% 이내 추천자가 해당되는 ‘경기력우수장학금’과 매학기 같은 과, 같은 학년 중 상위 9% 이내의 성적을 낸 학우가 받는 ‘성적우수장학금’, 마지막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위한 ‘가사곤란장학금’이 있다. 해당 장

학금은 등록금, 즉 학비만을 지원해 준다.

사후장학금은 학비 지원이 아닌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다. 교내·외 활동공로자, 봉사활동공로자, 외국어 우수자, 장애인대학생, 형제·자매 2명 이상 재학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수혜 자격 정보는 한국체육대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에 담겨있다.

교내장학금도 학생들의 아쉬움이 있었다. 가장 큰 의견은 수혜대상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적우수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상위 9%만 다음 학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학년에 4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3명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다른 학교처럼 상위 9%를 초과하더라도 전액이 아닌 부분장학금이라도 차등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사후장학금 또한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라는 점은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해당 장학금의 수혜금액인 100만 원도 한 학기의 생활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있다.

### 3. 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이 아닌 외부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종류도 많고 자격요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가능한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 교내장학금과 같이 새로운 장학금이 올라오면 우리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에 전달되니 꾸준히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교외 장학금은 국가 및 교내 장학금과 다르게 중복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교외 장학금이 한국장학재

2022년 상반기 기준 교내장학금 수혜 인원 현황					
구분	재학 인원*(A)	전액 면제자(B)	면제율	기준인원 (C=A-B)	장학금 배정인원
체육학과	957	612	64%	345	4
경기지도학과	55	7	13%	48	1
사회체육학과	310	40		270	3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55	20		135	2
특수체육교육과	130	17		113	1
스포츠산업학과	137	18		119	1
운동건강관리학과	164	21		143	2
노인체육복지학과	175	23		152	2
공연예술학과	142	18		124	2
태권도학과	157	20		137	2
계	2,382	796		1,586	20
* 재학인원: 2022. 7. 8.자 기준			(출처 : 한국체육대학교 홈페이지)		

단의 낮은 소득분위를 공통적인 조건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분위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인원은 교외 장학금 또한 받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직업, 거주지 등 특수한 조건들도 많아 실질적으로 폭넓은 수혜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학우들을 취재한 결과, 그들이 다른 방법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및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성적장학금의 불확실성이다. 성적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학우들의 대다수는 이전에 열심히 학업에 임하다가 기대한 성적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열심히 해도 수혜가 불확실한 성적장학금보다 내가 일한대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선택은 그들에게 합당하고 안전한 선택인 것이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분위 산정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많은 장학금 재단

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기준을 절대적으로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한번 해당 소득분위에 들지 못하면 수많은 장학금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가장학금의 일부인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에 신청했다가 소득분위 점수에서 밀려 탈락한 재학생F는 “해당 장학금은 체육계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으로서 자기소개서와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결국 이것들은 평가 기준에 없었고 오직 소득분위와 성적만 있었다.”라며 “이럴 거면 왜 나는 며칠 밤을 새며 그렇게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썼냐.”고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성 장학금이 대부분이고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서든 장학금을 얻어 학비를 해결하더라도 요즘과 같이 높은 물가에, 월세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생활비로 최소 평균 월 100만 원 이상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 대학생 개인의 노력 못지않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우선 대학생의 등록금보다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늘어나야 한다. 등록금 및 학비가 부담인 대학생도 많지만, 현재 대다수의 장학금처럼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은 학비 이상의 금액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학비가 해결

되어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본인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가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 자체의 다양한 생활비 지원용 장학금이 증가하면 대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장학금 수혜를 받는 자격 및 기준의 다양화다. 물론 소득분위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결정적이

란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정말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간절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꿈과 희망의 평가과정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꼭 필요한 대학

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의 점진적 개선은 필요하다. 또한, 소득분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재의 빈틈 있는 방식보다 대학생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역울한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다. “요

즘 대학생들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그저 아르바이트만 하니 미래가 없지.”라며 그들의 일상을 폄해하는 시선은 거두어야한다. 물론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 학생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는 이들을 어리석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본인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격려하고 이들이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는 대학교에 다니기도, 청춘을 즐기기도, 꿈을 꾸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 삶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대학생들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생은 9,160원짜리 존재가 아니다. 청춘은 절대 저렴하지 않다.